

핀테크 산업의 도약을 위한 기점, 오픈뱅킹

■ 정은진*

1. 서론

2019년 12월,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을 위한 출발점으로서 오픈뱅킹이 전면시행 되었다. 오픈뱅킹(Open Banking)이란, 오픈뱅킹공동업무 시스템(공동 플랫폼) 내에서 오픈뱅킹 서비스 생산자(은행 또는 제3자)가 오픈 API를 통해 오픈뱅킹 서비스 소비자의 금융 정보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하여 계좌조회, 이체 등의 금융서비스를 자체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오픈뱅킹 도입으로 서비스 생산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큰 제약 없이 소비자의 정보에 접근하여 금융서비스를 생산 및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서비스 소비자는 은행별 앱(APP, Application)에 접속할 필요 없이 하나의 앱에서 등록한 모든 계좌의 조회가 가능하며, 절감된 수수료로 자유로운 송금 등의 금융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오픈뱅킹 전면 시행의 궁극적인 목적은 서비스 생산자가 오픈 API를 활용한 금융서비스를 개발하도록 하여 핀테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오픈 API를 활용한 다양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개발의 기점이 되는 오픈뱅킹 서비스에 대한 현황 및 주요 이슈를 살펴보고자 한다.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ICT통계정보연구실 위촉연구원, 043)531-4093, eijeong@kisdi.re.kr

2. 주요 내용

1) 오픈뱅킹의 도입 및 기능

가. 도입

2015년 1월 금융위원회의 핀테크(Fintech) 산업의 성장동력 육성 전략으로서 「IT·금융 융합 지원방안」 발표 후, 전자금융거래 시 공인인증서 사용의무폐지, 실물카드 없는 모바일카드 단독 발급 허용, 다양한 비대면확인 방식 국내 허용 등 핀테크 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가 완화 되었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15).¹⁾ 이후 오픈 API를 활용하는 공동 핀테크 오픈플랫폼이 도입 및 운영(16.08)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오픈뱅킹의 대고객 시범서비스(19.10)와 전면시행(19.12)이 차례대로 실시되었다.²⁾ 오픈뱅킹의 도입은 단순히 소비자들에게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을 위한 출발점이며, 핀테크를 활용한 글로벌 금융혁신의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의 핀테크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 기능

해외 오픈뱅킹은 데이터 내역을 조회하는 조회형 API 중심이나, 국내 오픈뱅킹은 조회형 API와 입출금이 가능한 실행형 API를 포함한다(금융위원회 외, 2019). 국내 오픈뱅킹

1) 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과 IT의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및 산업 변화를 통칭한다(금융위원회 금융용어사전). 핀테크 개념 등장 이후, 관련 용어로 테크핀(TechFin, Technology+Finance)과 빅테크(BigTech, Big+Technology) 등이 등장했다. 핀테크는 금융기업이 IT기술을 접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테크핀은 IT기업이 자체 보유 기술을 이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서비스 제공 주체에 따라 구분하기도 한다. 또한, 빅테크는 거대 정보기술을 보유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같은 기업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고에서는 기술(Technology)을 접목한 금융서비스 제공의 개념을 핀테크로 통칭하여 표현하였다.

2)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는 응용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래밍 언어나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기능을 제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인터페이스를 의미하며, 이러한 API를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을 Open API라고 한다(김지은 외, 2019). 예를 들어, 특정 금융 어플에 계좌조회 오픈 API 시스템을 더하는 경우, 하나의 앱에서 계정 보유자가 등록한 모든 은행의 계좌를 한눈에 조회할 수 있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16).

서비스 생산자는 세부적으로 <표 1>과 같이, 조회형 API는 잔액조회, 거래내역조회, 계좌
 실명조회, 송금인 정보조회 기능을, 실행형 API는 입금이체, 출금이체 기능을 오픈뱅킹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 가능하다.

<표 1> 기능에 따른 오픈뱅킹 서비스

구분	기능	세부 내용
조회형 API	조회	① 잔액조회 : 사용자 본인계좌의 잔액 조회
		② 거래내역조회 : 사용자 본인계좌 입출금내역 조회
		③ 계좌실명조회 : 이용기관이 사용자 계좌의 유효성 및 예금주명 조회
		④ 송금인정보조회 : 이용기관 계좌로 입금한 사용자명 및 송금계좌번호 조회
실행형API	이체	⑤ 출금이체 : 사용자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이용기관 계좌로 입금
		⑥ 입금이체 : 이용기관 지급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자 계좌로 입금

주: 조회 기능은 조회형 API를, 이체는 실행형 API를 이용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료: 금융위원회 외(2019)

2) 오픈뱅킹의 현황

가. 제공기관 및 서비스 분야

오픈뱅킹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기관은 크게 시중은행과 핀테크 기업으로 나
 뉜다. 오픈뱅킹 시행 이전에 운영되던 공동 오픈플랫폼에서는 한정된 소형 핀테크 기업만
 이 오픈 API를 이용할 수 있었다. 일반적인 핀테크 기업이 특정 API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별 은행과 ‘핀뱅킹’이라는 계약을 맺어야 했고, API 이용 건당 약 400~500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했다(금융위원회 외, 2019; 서정호, 2019). 오픈뱅킹 시범서비스 단
 계에서는 일부 은행만이 오픈뱅킹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오픈뱅킹의 전면 시행으로 모
 든 핀테크 사업자와 참여 은행이 오픈뱅킹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서비스 제공
 기관이 대폭 확대되었다.3) 이로 인해 핀테크 기업은 핀뱅킹 계약의 필요성이 사라졌으며,

3) 사업자가 오픈뱅킹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신청을 해야 하며, 이용적합성 심사, 서비스 기능테스트
 및 보안성 점검 등을 거쳐 사전검증을 통과할 경우 오픈뱅킹의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외,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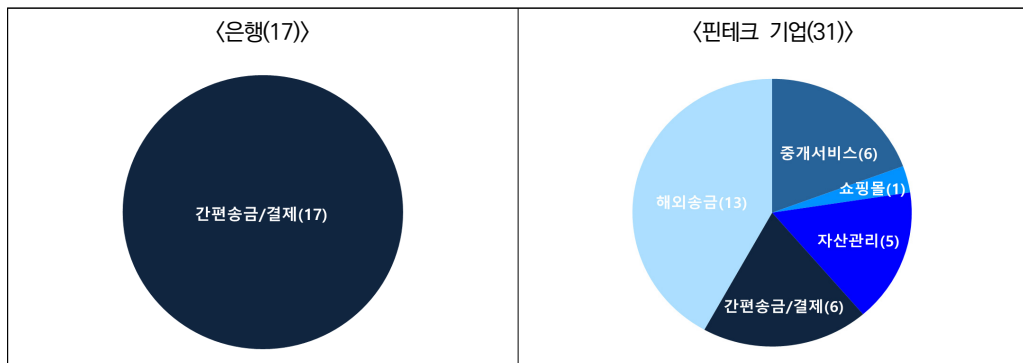
특정 API를 내려받기 위해 지불 하던 API 이용 건당 수수료가 약 1/10 수준으로 낮아져 핀테크 기업의 오픈뱅킹 활용 진입장벽이 낮아졌다고 할 수 있다.

오픈뱅킹 서비스 참여기관은 6가지의 개별 API 중 원하는 API를 자사 앱에 추가할 수 있다. [그림 1]과 같이 오픈뱅킹 서비스 참여기관 중 참여 은행 17곳은 간편송금 및 결제 기능을 제공하지만, 핀테크 기업은 간편송금 및 결제뿐 아니라 자산관리, 중개서비스 등 오픈 API를 활용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0년 1월 9일을 기준으로 오픈뱅킹 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는 기관은 시중은행 17개 과 기존 오픈플랫폼 이용기관을 포함한 핀테크 기업 31개로, 총 48개이다.⁴⁾

[그림 1] 기관별 오픈뱅킹 활용분야

(단위: 개)



주: 1) 2020년 1월 9일 기준이며, 참여기관이 추가될 예정이다.

자료: 금융위 외(2020), 금융위 외(2020) 재구성

나. 이용현황

오픈뱅킹의 시범서비스 기간('19.10.30~'19.12.17)부터 오픈뱅킹의 전면 시행('19.12.18) 이후 가입자 및 등록 계좌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19.10.30~'20.01.08까지 누적 가입자는 1,197만명, 등록계좌는 2,222만 계좌이며, 오픈뱅킹 서비스 총 이용건수는 8,228만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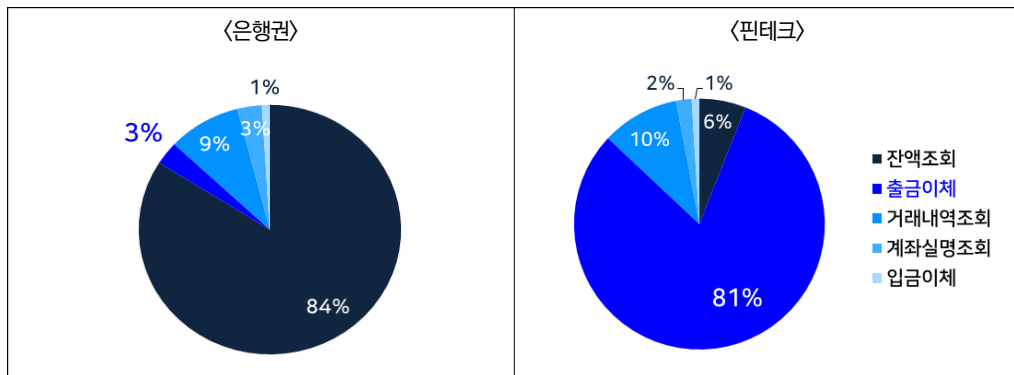
4) 오픈뱅킹 이용신청 기관 중, 승인을 받은 기관이 순차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제2 금융권의 오픈뱅킹 서비스 참여를 통해 오픈뱅킹 서비스 제공 기관의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일평균 374만건)이며, 이는 시범실시 기간 일평균 이용건수 173만건 대비 116% 증가한 수치이다(금융위원회·금융결제원, 2020).

오픈뱅킹 서비스의 전면시행 이후, 오픈뱅킹의 조회 기능이 이체 기능보다 활용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비스 제공기관 구분에 따라 소비자가 이용하는 오픈뱅킹의 서비스에는 차이가 있다. [그림 2]와 같이 은행권에서는 잔액조회가 약 84%로 조회형 API의 활발한 활용이 이루어졌으나, 핀테크 기업권에서는 출금이체가 약 81%로 실행형 API가 주로 활용되었다.

[그림 2] 기관 별 소비자의 서비스 이용 현황

(단위: 개)



주: 1) 조사기간은 2019.12.18.~2020.1.8.이다.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결제원(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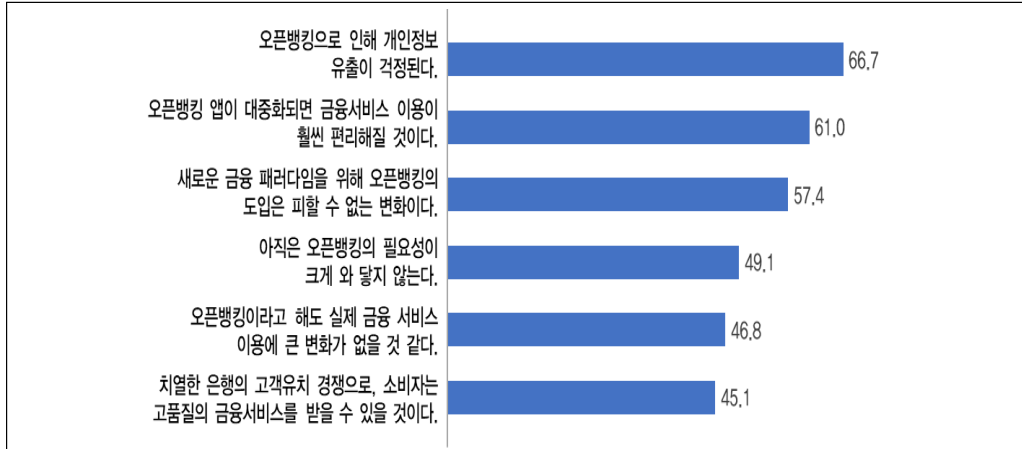
3) 오픈뱅킹 관련 주요이슈

가. 소비자 인식

한 조사기관에 따르면, [그림 3] 같이 오픈뱅킹의 필요성이 크게 와 닿지 않는다는 응답은 49.1%, 오픈뱅킹이 존재하여도 실제 금융서비스 이용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 같다는 응답이 46.8%였다. 정부 주도하에 오픈뱅킹이 도입되었으나, 아직까지는 오픈뱅킹의 필요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 3] 오픈뱅킹 서비스 관련 인식 조사 결과

(단위: %)



주: 1) '오픈뱅킹 관련 인식조사 결과'이며, 전국 만 19~59세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조사이며, 조사기간은 2019.12.20~2019.12.24이다.

자료: EMBRAIN TREND MONITOR(2020) 재구성

나. 보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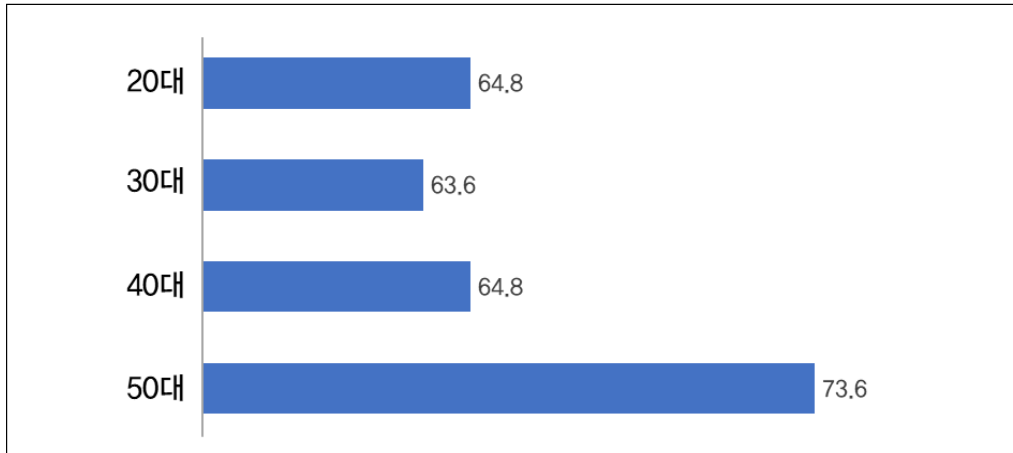
위와 동일한 인식조사 결과인 [그림 4]에 따르면, 오픈뱅킹에 대해 소비자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조사대상 중 특정 연령층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ICT 기술을 비교적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20~30대층의 보안에 대한 우려 수준이 40대층과 비슷하였다.

최근 보이스피싱으로 스마트폰에 원격제어 앱 설치를 유도한 후, 원격제어 앱을 실행해 대출을 받는 신종 보이스피싱 등장하였다.⁵⁾ 오픈뱅킹 이용과 직접 연루된 보이스 피싱은 사건은 아니었음에도, 오픈뱅킹 이용 시 등록된 모든 계좌 조회 및 송금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키우는 사례가 되었다. 오픈뱅킹의 안정화 및 고도화를 위해, 오픈뱅킹의 보안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 또는 현재 보안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조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⁶⁾

5) KBS NEWS(2019.11.14.), 오픈뱅킹 시작됐는데... '원격제어 피싱'에 손 놓는 은행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24182&ref=A>

[그림 4] 연령층별 오픈뱅킹의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 수준

(단위: %)



주: 1) '오픈뱅킹 관련 인식조사 결과'이며, 전국 만 19~59세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조사이며, 조사기간은 2019.12.20~2019.12.24이다.

자료: EMBRAIN TREND MONITOR(2020) 재구성

다.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

한국미디어패널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8년 기준 20~40대까지 전체 가구원 중 99%가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으나, 연령층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보유율과 스마트폰 활용능력 낮아 연령층 별 디지털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주영, 2019). 오픈뱅킹 도입으로 소비자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대한 편의성은 높아졌으나, 스마트폰 보유율과 활용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령층에게는 오픈뱅킹 활용이 어려울 수 있어 세대 간 디지털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 실제로 오픈뱅킹 시범 서비스 기간 중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오픈뱅킹의 이용경험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⁷⁾

6) 오픈뱅킹의 보안성을 위한 조치로서 금융보안원에서 보안점검 등의 심사를 통과한 업체만 오픈뱅킹 서비스 이용가능하고, 24시간 이상거래탐지 시스템을 이용한 실시간 거래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오픈뱅킹 이용기관에게 보증보험을 가입하도록 하여 만일의 금융사고 시를 대비한 보상체계를 갖추었다(금융위원회 외, 2019).

7) '오픈뱅킹 인지도 및 이용경험에 대한 조사' 결과이며, 조사대상은 전국의 만 20~59세의 금융거래 소비자, 조사기간은 2019년 11월 13일~2019년 11월 17일, 표본규모는 5,957명이다(NICE D&R, 2019.12)

또한, 오픈뱅킹 서비스 제공기관이 고객층을 확보하기 위해 오픈뱅킹 이용 조건에 따라 제공하는 우대 금리 등의 혜택이 오픈뱅킹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외층(疏外層)에게는 배제될 수 있어, 오픈뱅킹 사용 가능 유무에 따른 격차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어

오픈뱅킹의 전면시행으로 핀테크 기업과 은행은 일정 절차를 거친 후, 오픈 API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핀테크 기업과 은행 중 개인에게 가장 큰 편익을 제공하는 금융플랫폼을 선택할 수 있기에 소비자 참여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또한, 서비스 생산자는 계좌조회 및 이체 기능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어 핀테크 산업의 혁신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까지 오픈뱅킹 필요성에 대한 소비자의 비교적 저조한 인식, 보안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 연령대 별 디지털 격차 등은 오픈뱅킹 서비스 확대 및 고도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참고자료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2015), “세계최초로 금융권 공통 핀테크 인프라(오픈플랫폼) 구축
된다 : 제3차 핀테크 지원센터 Demo day 개최”, 2015. 07.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2016), “핀테크 서비스 개발, 이제 쉽고 빨라집니다 : 세계 최초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플랫폼’ 개통”, 2016.08.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결제원·금융보안원(2019), “오픈뱅킹 전면시행”, 2019. 12.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금융결제원(2020), “오픈뱅킹 전면시행 이후 동향”, 2020. 01. 보도자료.
- 김지은·강혜경·김지심·김경아·안유정(2019), “오픈 API 기반의 지하철 편의정보 제공 어
플리케이션”,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동계학술대회 논문집』, 27(1).
- 박주영(2019),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의 실태 -노년가구의 미디어 보유기기와
활용능력의 차이를 중심으로”, 《KISDI Primum Report》, 19(22).
- 서정호(2019), “오픈뱅킹 시대의 도래와 향후 과제”,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브리프》,
28(13).
- EMBRAIN TREND MONITOR(2020), 『2019 은행 서비스 및 오픈뱅킹 관련 인식조사』.
- 《KBS NEWS》(2019. 11. 14), “오픈뱅킹 시작됐는데... ‘원격제어 피싱’에 손 놓는 은행들”.
- NICE D&R(2019), “오픈뱅킹 인지도 및 이용경험”, 《금융 소비자 리포트》.